

2011년도 하반기 계육산업 전망

## 2011년 하반기 종계 · 부화업 전망



이상배 이사  
(주)삼화원종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우선 식품소비 패턴이 바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진국 수준에 이르면 식물성 탄수화물 위주의 먹거리가 동물성 탄수화물 및 단백질 위주로 전환되어 인간은 양질의 영양소를 공급받게 되므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 같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6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들 모두가 풍부한 식량자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유럽과 미국 등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식량난에 허덕이는 가난한 국가들의 국민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보면 동물성 식품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

2009년의 우리나라 1인당 육류 총 섭취량은 통계적으로 약 43kg이었다. 이중 닭고기가 9.6kg으로 약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2010년을 전후하여 비 선호 품목이었던 가슴살이 웰빙 바람을 타고 소비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닭고기 소비는 향후 계속해서 양질의 단백질 식품으로서 증가할 여지가 높아 식품산업 발전에 전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7월부터 닭고기 가격이 소비 호조에 힘입어 약 2년 반 이상 강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금년 5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생산비 이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자칫 불황의 골이 장기간 깊어지는 것 아닌가 하여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제역과 AI 같은 변수로 인하여 종계 600만수 이상이 분양되어 상대적인 과잉의 우려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황이 유지되었으나, 수입 닭고기가 가공용으로 대거 편입되

고, 한우시장이 소비 부진으로 하락하여 대체 소비가 발생한 반면 육계 생산 여력은 더 없이 높은 구조를 띠고 있어 닭고기 연중 최대 특수기인 삼복이 지나 하반기부터 상당기간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서 관련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종계 · 부화업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 1. 경제 여건 나빠지면 닭고기 소비도 감소

닭고기 구매자인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두둑해진다면 생산량이 다소 증가한다 해도 소비가 이를 흡수할 수 있지만 반대로 주머니 사정이 빈약해진다면 생산이 증가하는 만큼 가격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국내외 경기 흐름도 닭고기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가고 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소비시장이 위축되는 점이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구매보다는 전·월세로 돌아서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들은 가계수지를 악화시켜 하반기 내내 서민층의 가계부채를 높여서 결국 소비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럽 등 몇몇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난으로 수출여건이 나빠져서 국내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 물가불안 및 금리인상 촉발, 저축은행의 PF부실 등에 기인한 금융시장 불안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해외 경제는 먼저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과 직결되어 있다. 일본 역시 지진 충격으로 인하여 경기불안 요인이 장기화되면서 소비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물가 억제를 위한 세계 각국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전환하면 세계 소비가 감소하면서 유동성 악화를 초래하여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여건이 하반기에 상존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어쨌든 이들 요인들은 닭고기 소비에는 모두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 2. 환율 하락이 닭고기 수입 부추겨

세계 경제는 유럽과 미국, 중국, 일본을 축으로 하여 움직이고 있다. 일단 유럽의 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일본의 경기침체로 달러화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역시 달러화 약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는 달러화 공급이 증가하여 환율하락은 현실화 될 것이란 예측이다. 중국은 당분간 경제성장을 조정으로 물가인상을 가급적 억제하여 경기를 연착륙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2010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예견된다.

세계 경제의 흐름과 맞물려 우리나라 환율은 점차 하락세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양계업 경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 곡물가격으로부터 기타 수입원자재에 이르기까지 환율하락 폭에 따라 하락 여지가 있다. 닭고기 역시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산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국내 육계가격에 따라 수입량은 조정이 되겠지만 대세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 AI 발생에 따라 정부의 물가안정 목적으로 무관세 5만 톤이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반입되었다. 2010년 말 기준 닭고기 수입량은 11만2천 톤을 상회하였다. 2009년에 비해 약 66%가 증가한 수치이다. 2011년 1/4분기에 수입된 닭고기는 26,419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21%가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을 참고로 하다면 금년 삼복 기간을 겨냥하여 닭고기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3. 종계의 생산성 향상 경기 흐름 바뀐

최근 몇 년 전부터 종계업은 종계의 생산성 저하로 어려움이 많았다.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사양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농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종계 생산성이 대체로 원상회복되고 있어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병아리의 생산 잠재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육용실용계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육용종계 입식량 증가와 맞물려 전년에 비해 10% 이상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돼지고기 생산 기반은 정상화의 길로 입식량이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성수기까지는 강세가 유지된 후 물량이 증가하는 9월 이후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여 평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면 닭고기 소

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4. 종계 수입 증가 과잉생산 발미

2008년도 하반기부터 육계업은 호황기로 전환되면서 병아리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 이로 인하여 일반 사육보다는 계열화 업체에 의한 병아리 소비가 급증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연간 병아리 평균 가격이 2008년에 386원을 보이다가 2009년 평균 713원, 2010년 684원으로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생산, 공급되는 종계의 물량이 부족하여 종계 확보가 관건이 되면서 금년 4월부터 시작된 종계수입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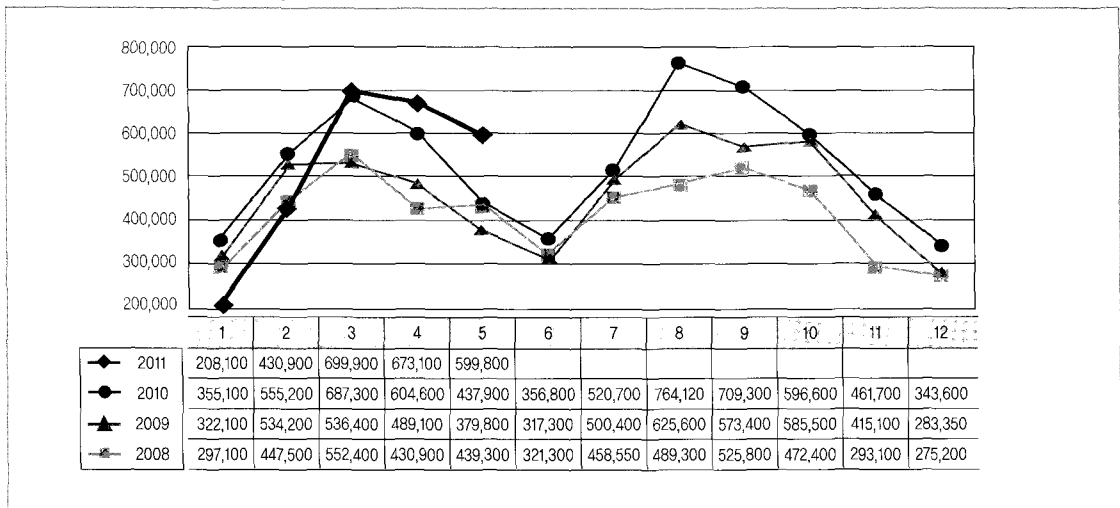
으로 예상되고 있고 병아리 생산과잉이 심히 우려되고 있어 종계·부화업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종계입식이 증가하여 2010년에는 실용계 생산잠재력이 5억8천만수로 2009년 대비 약 9.4%, 2011년은 6억4천만수로 2010년 대비 약 9.7%가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2009년에 비해 2011년에는 약 20% 정도가 증가하여 과잉생산의 폭을 실감할 수 있게 한다. 결국 불황의 골이 오랫동안 지속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5. 통계자료로 본 하반기 생산 전망

상기 <표 1>에서 보듯이 2010년도 하반기

<표 1> 지난 4년간 종계분양 현황



“

종계입식이 증가하여 2010년에는 실용계 생산잠재력이 5억8천만수로 2009년 대비 약 9.4%, 2011년은 6억4천만수로 2010년 대비 약 9.7%가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2009년에 비해 2011년에는 약 20% 정도가 증가하여 과잉생산의 폭을 실감할 수 있게 한다. 결국 불황의 골이 오랫동안 지속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종계분양수수는 전년 대비 월등히 많이 분양되었으므로 금년 상반기부터 시작하여 이미 병아리의 생산잠재량은 과잉의 상태임을 볼 수 있다.

지난 겨울처럼 구제역으로 인한 닭고기 대체 소비가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여름철 혹서

로 인한 생산성 감소 같은 특별한 생산감소의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불황의 상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금년 연말까지는 2010년보다 더 많은 사상 최대의 종계분양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V>

<표 2> 실용계 병아리 생산잠재량 추정

